

分)에 이르기를, "일체현성 개이무 위법 이유차별(一切現成 皆以無爲法 而有差別)"이라 했어요. 뜻으로 풀면, "모든 현인과 성인은 무위법으로써 여러 근기의 중생에 응한다"는 말인데, 이게 바로 성현의 처세입니다. 무위법으로 처세(處世)하는 겁니다. 무심으로 하는 거지요. 무심이란 뭐냐, 한마음 한뜻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묘용(妙用)'인 것이지요.

이 도리를 생활에서 응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자신이 아버지라고 칩시다. 사랑하는 아들이 사고를 저질렀어요. 용서받기 힘든 죄를 저질렀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하게 벌을 주면 뭐 처나갈 것 같고, 그냥두자니 사람 노릇을 못할 것 같고...

또 다른 경우를 볼까요. 죽마고우가 찾아왔습니다. 대뜸 와서는 돈 10억을 빌려 달라는 거예요. 물론 나는 백만장자예요. 하지만 선뜻 응할 수가 없어요. 작은 돈도 아닌데 주면 폐일 것 같고 안 주자니 원수가 될 것 같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네요.

이게 세상살이예요. 해야 옳으나 말아야 옳으나, 죽어야 옳으나 살아야 옳으나. 죽을 때까지 이런 갈등 속에서 사는 겁니다. 왜냐. 이윤배반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지요. 중생의 분별심이 만든 것이 중생계인데, 이런 분별심을 가지고는 아무리 정치를 잘 하고 좋은 약을 만들어도 분란과 병은 끊이지 않아요.

그럼 성현의 마음 씀, 즉 무심의 묘용이란 어떤 것이지? 생각을 비워 나가는 겁니다. 선한 생각도 하지 말고 악한 생각도 하지 말고 맹렬히 비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단계에 가면 선악이 뚝 떨어집니다. 그럼 부처 마음이 드러납니다. 바로

**"기도는 내안의 부처 드러내는 일"**  
**"긍정적 생각에서 성취 나오는 법"**

이때,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용서하려면 용서하고 빌려주려면 빌려 주고, 꾸짖으려면 꾸짖고 말하려면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안에 다 갖춰져 있는 불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묘용이지요. 부처의 성품에서는 칠정도 구경각으로 바뀐다.

이렇게 마음을 쓰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지요. 무위법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통은 마음 날이 없어요. 병이 있다고 믿는데 병이 없어질 턱이 없습니까. 일체가 유심조인데, 병도 죄도 본래 없어요. 이 도리를 생활에 응용하라 이겁니다. 된 거 아니예요. 마음 바꾸기가 묘용이예요.

도를 모르고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는 한 구제는 불가능합니다.

- '기도'도 그러한 마음씀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까?



◊ 팔공산의 품에 안긴 성전암에서 28년째 수선과 함께 대중을 일깨우시는 철옹스님.

▲ 갈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참다운 기도란, 내 마음 안에 있는 부처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내 생명을 위대하다고 선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늘상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딱한 노릇이예요. 그렇잖아도 모자란 몸이, 모자란다 모자란다 하는데 이루어질 리가 있나.

필요라는 것도 성취라는 것도 다 마음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거나 지식이라는 것이 원심이 채워진 뒤에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다는 위대한 생각을 하라 이겁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하는

가는 겁니다. 물 속에 막대기를 꽂고 보세요. 밖에서 볼 때는 굽어 보일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막대기가 굽었나요? 실제로는 안 굽었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자신이 부처네 그걸 모르고 거꾸로 보는 거예요. 바로 본다는 것은 모든 편견을 놓고 본다는 겁니다. 지식이 있고 힘이 있고 모자란다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가 부처예요.

어떻게 그런가? 다음 소동파의 오도송이 그걸 말합니다. 설부른 일을 알아나 지식이라는 것이 원심이 채워져야 다름없음을 환히 보여 주는 그런 계승이요.

저 흐르는 물 소리는 부처님의 다함없는 법문이요 산빛은 그대로 부처의 몸이로다. 어젯밤 들은 (여래의) 팔만사천 법문을 다른 날 그대에게 어찌 전할까. 溪聲便是廣長舌 山色豈非淨法身 夜來八萬四千偈 他日如何學似人

소동파(蘇東坡, 1036~1101)가 누구니까.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으로 한 시대를 문장으로 풍미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가 66세에 불문에 귀의하여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계기가 이렇습니다.

천하의 소동파가 상흥(東林常德, 1025~1091) 스님을 찾아 받들 청합니다. 그러자 상흥 스님은, "왜 무정 설법을 듣지 않고 유정 설법만 들으려 하느냐. 저 나무와 돌도 설법을 하거늘" 하고 말했다는 말이예요. 여기에 소동파가 탁 걸었어.

어떻게 나무와 돌이 설법을 하는가? 이걸 화두 삼아 물고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선가에서는 닭이 알을 품을 때의 모습에 비유합니다. 여간간 그 절절한 심정은, 과부가 잃어버린 자식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대로입니다. 알고 모르고도 다 떨어진 상태가 된 거지요. 오직 돌

“  
나와 남 가르면  
마음에 독이 생겨요  
편견 놓고 대하면  
돌 아닌 하나지요  
”

과 나무가 어떻게 설법을 하는가 하는 한 생각 뿐인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곡을 지나다 폭포 소리를 듣는 순간, 탁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읊은 깨달음의 노래가 바로 조금 전에 일러 준 오도송입니다.

귀한 말씀 소중히 새겨 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면을 통해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될 불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일러 주십시오.

▲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의식이 전전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일체유심조예요. 오직 마음 뿐이잖아요. 공부하세요. 절에만 다닌다고 볼 자 아닙니다. 선과 교가 돌이 아니예요. 끝자의 노예가 되는 게 문제지요. 이 몸 그대로 법당인 줄 알고 자꾸 그렇게 노래하세요.

물러나와 돌아서는 발걸음이 가볍다. 스치는 나무와 바위들이, 울라울 때 그대로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다.

대담=윤재학 부장 (yunjh@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호산스님의 스님이야기 법인스님

겨울 산에는 어둠이 일찍 온다. 짙은 산그늘 속에서 어둠이 검은 파도처럼 밀려오면 지만 치 마지막 남은 햇살이 산등성이 한 모퉁이에서 끈질기게 버티고 보지만 이내 힘없이 스러지고 만다.

그렇게 모든 삼라만상이 어둠 속에 묻히고 나면 겨울밤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밤이 길면 그만큼 꿈도 많을 수밖에 없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많은 날에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듣고 싶고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지지만 대중생활에서는 어려운 일이다.

삼경 중소리가 울린 얼마 후 대중스님들이 끈히 잠들어 소소리가 찾아들 즈음, 소리 없이 공현당문을 열고 나섰다. 그저 생각 많은 날 밤에 어쩌다 한번씩 찾는 곳이지만 잔설이 아예 깔린 장경각 뒤편 수미탑에서 해인사의 야경을 내려다보면 이상하게도 잡념이 씻은 듯이 사라지곤 했다.

그날 밤, 법인스님을 그곳에서 만났다. 아마 법인스님도 나처럼 생각 많은 날 이곳을 찾아왔던가 보다. 그때까지 엄격한 강원 대중생활에 익숙치 못했던 나와, 상반이었던 법인스님 간에 개인적인 만남이란 있을 수가 없었다. 강원생활이란 시간적 여유도 없지만 마음의

**염불 잘하고 수행 잘하고  
힘든일 마다않고 묵묵히**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날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처음 해 보는 승가생활의 서투름, 도반스님들과의 갈등, 수행생활에서 오는 번민 등을 놓고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격의없이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 기실 그때 나는 강원생활의 어려움과 마음의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강원을 잠시 쉬려고 깊이 생각해 못했던 때였다. 그날 법인스님은 상반스님답게 모든 것을 이해하여 주었고 자신도 그런 문제로 많이 갈등해온 적이 있었다며 세심하게 조언하여 주었다. 그날의 조언이 강원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결국은 졸업까지 할 수 있었으니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그날 이후 우리는 약속없어도 가끔씩 달 밝은 밤이면 수미탑에서 만날 수 있었다. 설익은 생각이었지만 인생과 철학을 논했고 종교와 수행을 이야기하면서 겨울바람의 매서움을 녹여 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승련 학인 대회가 해인사에서 열렸다. 많은 대중스님들이 준비관계로 고생을 했지만 특히 법인스님이 유독 고생이 많은 소임을 맡았었지만 삶은 기색 하나 없이 씩 웃음을 지으며 대중들을 독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었다.

어른스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전야제는 전국의 승가학인들이 모두 모였다는 반가움에 약간은 들떠 있었다. 웃음과 해학, 재능을 뽐낼 수 있는 장기자랑에 느닷없이 법인스님이 나섰다. 그리고는 대중가요인 '수덕

사의 여승'을 멋드러지게 불러 제했다. "아니 웬 스님이 이렇게 노래를 잘해?"

모두의 시선이 모아졌고 노래를 마친 법인스님은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여지없이 대중스님들의 박수갈채를 받았고 단연 그날의 주인공이 되었다. 평소 애용송씨가 좋아 노래도 잘 하겠거니 생각은 했었지만 명가수 뻘치는 솜씨를 지니고 있었다.

이후에 강원애 어려움이 있었고 당시 강주스님께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길 때 "남자는 의리가 있어야 한다"며 해인사를 떠난 몇 년 후 지리산 서암으로 법인스님을 찾아갔었다.

도량에서 법인스님을 찾을 수 없어 한참을 헤맨 후에 간신히 허름한 작업복과 온몸에 돌가루를 허얇게 뒤집어쓴 채 눈과 입술만 보이는 법인스님을 찾을 수 있었다.

인부들과 같이 섞여있어 뺨뺨 꺾은 머리가



아니면 쉽게 찾을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지리산 서암은 그의 은사스님께서 큰 원력을 세워 십년 불사를 하고 있으며 또한 틀림이 화엄경 금니사경을 하며 수행하고 계시는 도량이다. 이곳에서 법인스님은 강원졸업 후 여태 이렇게 생활하고 있으니 특심과 근력이 대단한 스님이다. 종단이나 다른 곳에서 소임 자리를 권해도 자신은 산승일 뿐이며 산승은 산을 떠나는 게 아니라며 굳이 은사스님과 함께 그 힘든 도량불사를 고집하며 묵묵히 일하는 그의 모습이 무척이나 아름답게 느껴졌었다.

노래 잘 부르고 열불 잘 하는 스님. 인품 좋고 성격 당차며, 의리 있고 수행 잘하고 돌쇠처럼 굳기 지리지림이 잘하니 만약에 승가에 팔방미인이 있다면 이런 스님이 아니겠는가 싶다.

겨울철에는 불사가 조금은 한가할 테니 올해가 가기 전 내복이나 한벌 사서 작살차 한잔 얻어 마시러 가야겠다. 그리고 수미탑 아래서 못다한 이야기를 밤새워 듣고 동근 보름달 같이 밝은 성품을 배워야겠다.

■ 고려대장경연구소 기획실장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2001년의 새로운 시대의 문을 활짝 열고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건강과 희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11월 5일 강남 오피스텔에서 시흥시로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출퇴근이 멀고 활동범위 시간 관계로 옮겨지게 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승용차 운행: 전화약속(30분소요) 영등포역→신세계 백화점 정문 역곡 남부역쪽 1호선 하차→ 기업은행 정문

원장 이영숙

- 大幸,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결혼연구원**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직통전화: (031) 315-5429  
대표전화: (02) 522-5121  
핸드폰: (018) 277-5592

**입방안내**

금강선원 선문장은 재가불자들을 위한 참선수행 정진도량입니다.

일년내내 개방하며,  
수행일정은 수행자 본인의 자유의사대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입·출소가 자유롭고,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수행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혜거스님의 법문과 개인 상담이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선수련원 禪門莊**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화상대 1리  
전화 033) 433-5845 ~ 6

**레이키(Reiki)법이 왜 화제인가?**

드디어 『박희준식』 레이키(Reiki)법을 확립해 국내외에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 누구나 그날부터 氣力(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레이키(Reiki)는 우주 창조와 만물의 조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근원적인 사람의 생명 에너지이며, 이것을 질병의 치료와 생활의 다방면에 이용하는 법이 레이키법입니다.

이법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개발한 사람은 일본의 우스미 카오(1865-1926년)씨인데 현재는 미국을 거쳐 세계로 보급이 확대되어 전세계에서 1억명 이상의 인구가 이미 이것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세계 1백개국에 보급되고 있는 21세기 「氣의 과학」이라고 합니다.

레이키법에는 어떤면에서는 비법이 있기때문에 누구나 그날부터 氣力(기력)자가 될수(기력)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박희준)는 풍양의 天人相應의 원리를 이용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마음 수련에 힘쓰는 결과 이 능력을 더욱 높여 세계 공지의 어떤면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슨 병이나 잘 나을 정도로 원할 파워(치료 능력)도 높아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공수련을 했어도 氣力(기력)자가 되지 못했던 분이나 더욱 치료능력을 보강하고 싶은 분은 주저 말고 오십시오.

교육대상: 의료 건강 분야 종사자, 호스피스 봉사자, 환자나 그 가족, 일반 국민

교육단계: 제1-제3단계, 3일정도 소요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50만원으로 가격 인하 단행!

**현대생활 레이키연구회**  
전화: (02) 720-5682/725-2311 팩스: 725-2312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Reiki.co.kr

**일주일 철야 용맹정진 법회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삼각산 조계종 보림사 보림선원에서는 7일간 철야 용맹정진을 아래와 같이 하유는바 보림3關(不去不來處 生者何物 滅者何物 泰山胡目來 緣水掩耳去, 心外無法處 迷者何物 悟者何物 古路草自青 正邪俱不用, 人我皆空處 說者何物 聽者何物 若論今事 忽忘舊時人)을 主題로 法門을 하며 二十一世紀 앞소식인 人天의 眼目을 열어가는 話句 大乘轉을 薦揚 하고자 하오니 뜻있는 禪友는 來 參하여 서로 탐마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 일 시: 2000년 12월 31일(일) 오후 8시부터 2001년 1월 6일(토) 오전 7시까지
- ▲ 장 소: 보림사 선방(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1번지) 02)914-6187
- ▲ 회 비: 일반 7만원 (1일1만원 기준)
- ▲ 연락처 및 문의처: 017)332-4096 / 02)914-6187
- ▲ 교 재: 보림삼관, 금강경, 82-85년도 철야정진 테이프
- ▲ 준비물: 간편한 복장, 세면도구
- ▲ 교통편: 지하철 4호선 돈암역에서 하차 - 1, 3, 5, 5-1, 16, 710번 청수장행 버스 승차 산장아파트안 하차(돈암역에서 25분 소요)

조계종 보림사 회주 목산 합장  
보림회 회장 이수열 합장